충남도는 국립공주대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충남도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충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최원철 공주시장,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현호 대전 시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옥 세종시 자원봉사 센터장, 민영완 충북도 자원봉사센터장, 도내 우수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시간이 만든 기적, 우리가 만든 감동'이라는 주제로 Δ 부여군 충남국악단 축하공연 Δ 기념 퍼포먼스 Δ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8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 자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지역사회를 위 한 노고에 감사의 마음과 격려를 전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이 사회에 공헌하는 과정 속 에서 고되거나 외롭지 않도록 도가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우수 봉사자 본인 간병비 지원 △지역 소상공인 할인서비스 제공 등 인센티 브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대전중구 문화·도시재생 혁신 현장 춘천시 방문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혁신현장 사례탐구 교육사업'의 다섯 번째 방문지로 법정 문화도시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방문해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

이번 탐방에는 김제선 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업무 직원 30여 명이 ▲꿈꾸는 예술터 춘천 ▲모두의 살롱 (후평동, 효자동) ▲아르 숲 생활문화센터 ▲춘천 사회혁신센터 커먼 즈필드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상상언 더그라운드 ▲김유정 문학촌 등을 방문해 관련 정책과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꿈꾸는 예술터'에서는 옛 춘천교육지원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 목적의 전용공간으로 변화시킨 정책 사례와 운영 방식을 확인했다.

이어 찾은 '모두의 살롱 후평동'에서는 빈집을 재생하여 조성한 시민문화커뮤니티 공간에서 주민들이 생활문화활동을 향유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며, 주민 참여형 문화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춘천에서는 문화와 도 시재생이'사람과 공간이 함께 살아나는 방식 으로 구현되고 있었다"라며, "선진적인 사례 를 참고하여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가 접목된 중구형 문화도시 및 도심재생정책을 펼치겠 다"라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강경 주민도 도시가스로 '불' 밝힌다!

충청남도, 도시가스 특별 공급 1호 완성…250억 원 투입 배관망 40km 구축



올 겨울 충남 논산 강경 주민들도 도시가스로 보다 저렴하게 난방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논산 강경 근린공원 일원에서 도시가스 특별 지원 사업 개통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백성현 논산시장, 김영석 JB주식회사 대표 등 7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개통식은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세리머 니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강경 도시가스 공급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민선8기 출범 이후 마련한 특별 지원 사업에 따라 추 진했다. 충남도는 2023년 8월 논산 시·JB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2년 동안 250억 원을 투입해 논산산업단지에서 강경읍 일원까지 40km 규모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했다. 특별 지원 1호 사업인 강경은 수혜 가구가 8개 사업 대상 지역 중 가장 많은 3500세대다.

충남도는 이번 도시가스 개통에 따라, 강경 주민들이 기존 등유나 LPG에 비해 연간 30% 가량의 난방 비 절감 효과 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도지사는 "가스는 난방과 취사에 필수적인 만큼, 이를 안전하 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과도 같다"라고 말 해다

이어 "강경읍에 새롭게 깐 40km의 배관망은 기존 논산시 전체 배관 길이의 30%가 넘을 정도이며, 사업비250억 원도 전체 사업 지역 중 가장 큰 규모"라며, "불편하고 고생하는도민 여러분을 위해 하루빨리 완공하길 고대했는데, 이렇게 숙원을 풀어드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충남은 도민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저렴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며, "2028년까지 도시가스배관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1200억 원을 투입하고, 바우처 등 복지 사업에도 500억 원을 지원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남도는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4월 서 산 운산 630세대에 새롭게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서산 부석은 내년 11월, 보령 웅천은 2027년 10월부터 도시 가스를 공급한다.

이현진 기자

모두의 돌봄, 모두의 디자인 생각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리프레임 소통시리즈》

대전시는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 《대전시소》의 기획 프로그램인 《리 프레임 소통시리즈》 두 번째 편으로 '모두의 돌봄, 모두의 디자인'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

《리프레임 소통시리즈》는 기존의 정책 프레임을 벗어나 시민의 경험과 언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실험 적 소통 프로젝트다.

이번 '돌봄' 편은 "돌봄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도시의 보편적 의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워크숍은 '돌봄·나이듦에 대하여'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하여' 두 개의 발 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서울 연구원 안현찬 연구위원과 유니버설하 우징협동조합 이범재 대표가 강연을 맡았다. 안현찬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로 진입한 도시에서의 '포용적 돌봄 도 시' 방향을 제시하며, 일상 공간 속에서 구현되는 지역 기반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범재 대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통해 "모두가 편한 사회보다, 모두가 불편을 조금씩 나누는 사회가 진정한 포용사회"임을 강조하며 참여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현장에는 시민, 장애인 그룹, 돌봄·복지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함께해 다양한 시각에서 돌봄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나이듦이 존엄할 수 있는 도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는 사회'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돌봄을 시설 중심의 제도가 아닌 일상적 권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상과 제도가 만나는 정책적 상상력을 공유했다.

전재현 국장은 "돌봄을 특정 세대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도시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의제로 확장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채봉 기자

도심 속 양봉 생태계 꾸려 나간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청 세종실에서 도심 속 꿀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가축 위생방역지원본부와 '도시양봉 활성화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생태환경 복원, 시민 정서 치유와 지역 상생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각자 전문 역량을 모아 지속가능한 도 시양봉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 다.

협약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양봉 질병관리 방역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능형(ICT) 양봉 체계 구축 및 방역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도심 내 유휴공간과 공 공부지를 활용, 꿀벌정원(폴리네이터 가든)을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양 기관은 정례 협의체를 구성 해 도시양봉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 점 검하고,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양봉 산물의 사회적 기부와 세 종형 도시양봉 상징물 공동 상표 출원 등 후속 사업도 공동 추진한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시는 도시 면적 절반 이상이 정원과 녹지로 이뤄져 꿀 벌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도시양봉과 꿀벌산물의 사회적 기부를 적극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하반기 도로명판 설 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로명판 설치는 신설 도로구간과 교차로 등 시설물 설치를 필요로 하는 구간 56곳을 우선 선정해 진행했다. 특 히 신규 조성된 노장산업단지 도로에 도로명판 46개를 집중 설치하면서 시 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채봉 기자

청년의 눈으로 담은 충북 이야, 영상으로

충청북도, 총 9개팀 청년 영상제작자가 만든 25편의 '도민 영상자서전' 공개

시골 사진관을 지키는 사진작가, 70

충청북도가 청년 영상제작자들의 창의적인 시선을 통해 지역의 다채로 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주 력하고 있다.

충북도는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청년영상제작자, 이야기주인공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자서전 2차 기획콘텐츠 제작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제작결과 보고를 넘어, 제작자와 영상속 주인공 모두가 함께 웃고 공감하는특별한 형식의 영상제로 진행되어 그의미를 더했다.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이번 사업에는 총 9개팀 25명의 청년 영상 제작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2인 이상팀을 구성해 협업하며 충북의 다채로운 삶을 카메라에 담았다.

삼둥이 아빠의 솔직한 육아일기와 함께 충북육아수당 등 충북형 육아정 책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사라져가는 대 늦깎이 영상제작자, 목공예로 제2의 인생을 연청년, 30대 농부의 스마트 참 창농 현실 이야기 등 다양하고흥미 있는 영상들이 제작됐다. 이번에 제작된 25편의 영상콘텐츠는 11월부터 매주 1~2편씩 '충북인이야기'와 '충북영상자서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청년영상제작자기획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올해 6월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 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영상 자서전 사업을 활성하는 것을 목표로 도는 제작자들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편당 최대 1백만 원을 지원한다.

오유길 정책기획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 영상제작자들의 실력을 키우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 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창작자들의 도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다 양한 영상자서전 제작 시업을 지속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들에게는 콘텐츠 창작 역량 강

지역의 숨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날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평범한 도민의 삶이 소중한 문화콘텐츠로 재탄생하는 '1인 1기

화와 새로운 도전 기회를, 도민에게는

록화' 문화운동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충청북도는 도청 영상회의실 에서 「충청북도 클라우드 전환·통합 정보화전략 수립(ISP) 용역」 완료보

에서 「충청북도 클라우드 전환·통합 정보화전략 수립(ISP) 용역」 완료보 고회를 열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의 통합 행정 인프라 구축 방안을 담 은 디지털 행정 전환 청사진을 공유했 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